

# ‘시도해보자’는 당찬 생각, 위안소 진열관에 변화 일으키다

이서림 기자 silee1001@knu.ac.kr

아시아에서 발견된 일본군 위안소 중 최대 규모인 중국 난징 ‘리지상 위안소 유적 진열관(진열관)’의 번역 오류를 고치고 한국어 팜플릿을 제공한 우리학교 학생이 있다. 리지상 진열관은 규모와 그것이 담고 있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번역 오류 또한 존재했다. 교환학생 신분으로 중국 유학 중인 설동준(언론정보학 2014) 씨와 남다희(중국어학 2015) 씨는 이를 바로잡고 한국어 팜플릿 300부를 만들어 진열관에 기증했다.

중국에는 한국과 역사가 겹치는 장소가 많다. 난징은 그 대표적인 장소다. 1937년,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불과 6주 만에 수십 만 명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극동국제재판 판결에 따르면 이때 희생자는 최소 12만 명에 달한다. 다른 한편에서 일본군은 이곳 난징에 현재까지 발견된 위안소 40여곳 가운데 최대 규모의 위안소를 세웠다.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여성들을 가리지 않고 건물 8개 동에 나눠 넣고 끌없이 능욕했다. 중국은 이 참상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 2015년 연말 난징대학살 추모기념관 분관 형태로 진열관을 개관했다.

설동준 씨는 이렇듯 양 국의 역사가 교차하는 장소에 주목했다. 난징대학살 추모기념관은 그 규모와 전시물의 고증이 충실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참극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분관 형태로 운영되는 진열관은 그렇지 않았다. 설 씨가 방문해 본 전시관 내 설명은 영어와 중국어 설명이 주를 이뤘다. 한국어는 미미하게 설명을 보태고 있을 뿐 피해상황에 관한 한국어 안내판은 딱 한 개였다. 그나마 있던 작은 한국어 전단지는 역사에 대한 설명보다 기념관 설립·개조 과정 등 난징 정부의 공헌에 관한 내용밖에 없었다.

설 씨는 진열관 개관에 큰 역할을 한 故 박영심,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 2003년 11월, 북한의 박영심 할머니는 중국에 직접 방문해 리지상 위안소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언을 남겼다. 이 덕분에 그동안 폐가로 방치되던 위안소는 진열관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설 씨는 진열관의 설립에 기여한 할머니들에 대한 설명과 피해 상황조차 영어와 중국어로만 적혀 있는 것을 보며 한국어 설명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다.

문제를 깨달은 설 씨는 ‘무작정’ 계획했다. 설 씨는 “내가 아닌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태도보다는 일단 시도해보자는 패기 넘치던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설 씨의 구상은 경희꿈도전장학의 도움을 받아 구체화됐다. 마찬가지로 교환학생에 와 있던, 중국어에 능통한 남다희 씨의 도움을 받아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부족하지만 우리가 해보자’라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다행히 진열관 측의 반응도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다. 그렇지만 막상 진열관과 본격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진 후에는 매일이 고민이었다. 설 씨는 “팸플릿이 전시용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담당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할까, 기증을 완료할 수 있을까 등 걱정과 불확실함에 부딪혔다”라고 말했다.

중국어를 책으로만 공부한 설 씨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남 씨였다. 중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고 중국어학을 전공한 남 씨 덕분에 의사소통이 원활했다. 남 씨는 진열관 측에 계획을 전달하고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았다. 남 씨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말투가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했다”며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어휘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매일 팜플릿을 수정하고 보충하는 과정을 거쳐 팜플릿 시안을 완성했다.

완성된 팜플릿을 본 진열관의 반응은 좋았다. 진열관은 이를 최종 검토한 뒤 중국어 팜플릿도 함께 기증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덕분에 현재 진열관에는 중문판과 한국어판 팜플릿이 모두 배치돼 있다. 진열관 측은 “본 진열관이 한국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개괄적인 내용만 있던 과거 팜플릿과 달리 새 팜플릿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진열관 사진, 구조, 자료, 진열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개요와 더불어 특히 2006년 작고한 故 박영심 할머니의 소개에 한 페이지 가량을 할애했다. 이전 안내에 있던 진열관 명칭이나 어법상의 오류 등 알맞지 않은 부분도 수정해 정확하게 표기했다.

설 씨는 “유적지에 한 나라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역사에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팜플릿의 설명을 수정했다는 것을 넘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미약하게나마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 씨 역시 “우리가 유민인도 아니고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를 알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같은 아픔을 공유했던 한국과 중국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은 두 사람은 “팸플릿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열관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은 계기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이미 다음 목표도 정해뒀다. 광저우 황포군관학교에 한국어 팜플릿을 기증하고 광저우 임시정부청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광저우 황포군관학교는 김봉원의 열단장과 열사들이 한국인 200여 명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교육을 제공했던 기관이다. 하지만 이 곳 역시 한국어 설명이 부족하다. 심지어 광저우 임시정부청사는 현지인들의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곳이 역사적 장소라는 작은 안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양국 정부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두 사람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곳 역시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제작 단계인 팜플릿을 들고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설 씨는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유산 위촉위원회에 되어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힘을 키운다면 역사적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역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역사를 인정받으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역사가 맞닿는 부분에서 CSR을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남 씨는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TV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보며 국가 간의 소통을 돋는 매개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남 씨는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에 갖는 편견을 깨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모습을 알리고 싶다”며 “나라 간의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소통했고 조금이나마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구현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혁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한 사진이 화제에 올랐다. 더 거슬러 가면 TV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주목한 아픔의 역사들도 술하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흔적이 즐비하다. 주목받지 못했던 역사의 주변부에서, 작지만 단단한 도전을 이어나가는 그들의 행보를 응원한다.



① 설동준(가운데) 씨와 남다희(오른쪽) 씨가 리지상 위안소 진열관에 직접 제작한 팜플릿을 기증하고 있다. (사진= 설동준·남다희 제공)

② 故 박영심(오른쪽) 할머니는 리지상 위안소 진열관 설립에 크게 기여했다. (사진= 중앙일보 DB)

나와 빨래하자  
차원이 다른 빨래방

크리토파이+코인위시